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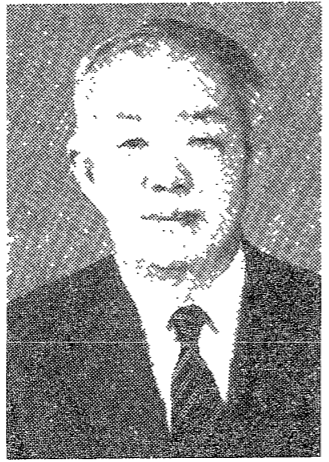


### 총장·이사장 新年辭... "東國80년 아침은 밝았다."

# 民族私學의 면모 과시할 때

## 자긍심과 과시로 발전의 상응기대

### 大乘의 雄飛로 새 地平的 展望



黃壽永 총장



吳線園 이사장

총장·이사장 新年辭... "東國80년 아침은 밝았다."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새해가 밝았다.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자긍심과 과시로 발전의 상응기대

대승의 雄飛로 새 地平的 展望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民族私學의 면모 과시할 때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教育·研究·奉仕의 三면 倍加해야

民族的 召命으로 계속 精進을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자긍심과 과시로 발전의 상응기대

대승의 雄飛로 새 地平的 展望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民族私學의 면모 과시할 때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教育·研究·奉仕의 三면 倍加해야

民族的 召命으로 계속 精進을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자긍심과 과시로 발전의 상응기대

대승의 雄飛로 새 地平的 展望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 大學은 現實을 풀기위해 思想깊이 해야

大學은 現實을 풀기위해 思想깊이 해야

대학은 현실을 풀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를 위한 인재로 길러야 한다.

大學은 現實을 풀기위해 思想깊이 해야

대학은 현실을 풀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를 위한 인재로 길러야 한다.

大學은 現實을 풀기위해 思想깊이 해야

대학은 현실을 풀기 위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곳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를 위한 인재로 길러야 한다.

### 86년 새 아침에

86년 새 아침에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86년 새 아침에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86년 새 아침에

동국대학교는 1906년 창립 이래 80년이라는 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민족의 사명을 다져왔고,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다. 이 80년 동안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 新春對談... 잃어버린 主人意識 어떻게 찾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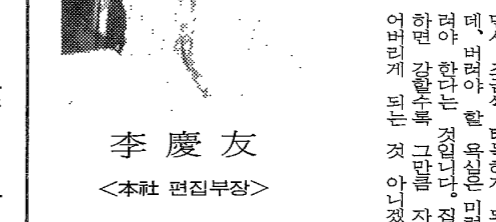
▲「주인 의식이란 무엇인가?」  
 ▲「주인 의식은...」  
 ▲「주인 의식은...」  
 ▲「주인 의식은...」

## 主人은 베풀어야 한다



未堂 서정주

▲「주인 의식은...」  
 ▲「주인 의식은...」  
 ▲「주인 의식은...」



李慶友 <本社 편집부장>

“六婆羅蜜이 곧 主人意識입니다. 民族과 인류를 위해 大慈大悲의 사랑의 실천이 主人 되게 함이요, 職分에 충실함이 곧 그 意識을 갖게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主人 의식은 布施와 忍欲의 大智慧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집착이 自滅의 원인

### 抗日정신, 장기적 안목서 키워

▲「집착이란...」  
 ▲「집착이란...」  
 ▲「집착이란...」



## 작업자가 무수업을 하겠는가

▲「작업자가...」  
 ▲「작업자가...」  
 ▲「작업자가...」

## 放送企業 아닌 제작사로 전락가능

### 報道보다 啓導가 더 강조된 現實

▲「放送企業...」  
 ▲「放送企業...」  
 ▲「放送企業...」

## 인내와 의지

▲「인내와 의지...」  
 ▲「인내와 의지...」  
 ▲「인내와 의지...」

## 鹿野花

▲「鹿野花...」  
 ▲「鹿野花...」  
 ▲「鹿野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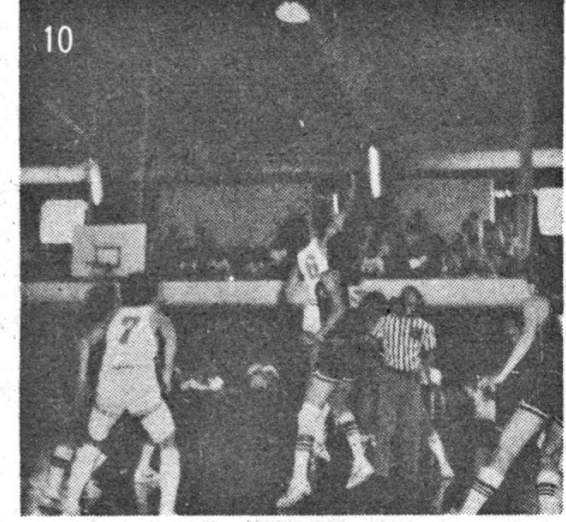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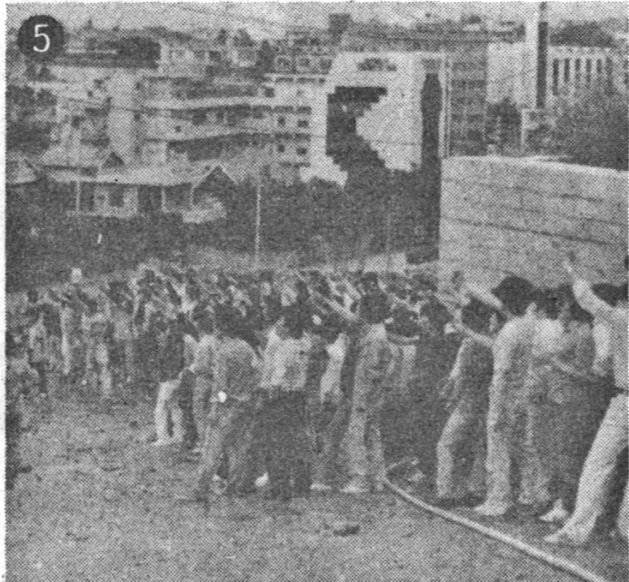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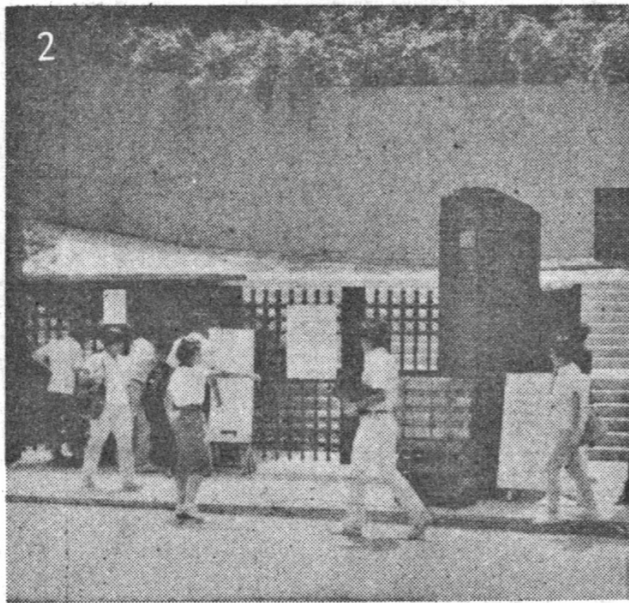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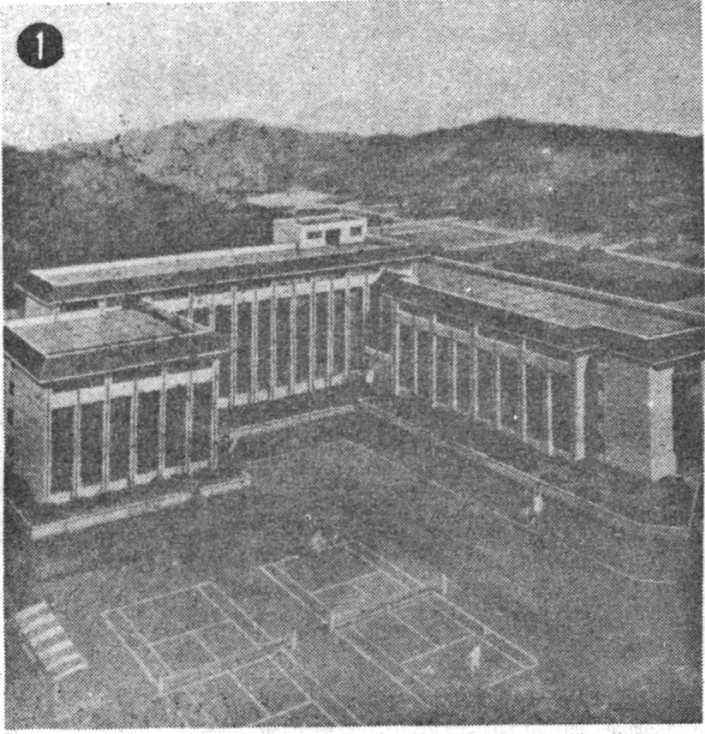
## 謹賀新年

# 東國大의 무궁한 發展을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 선진건설주식회사 - 회장 황경석 - 대표이사 신호철
- 아주산업주식회사 - 회장 문태식
-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 - 대표이사 홍순지
- 한국짚바주식회사 - 회장 이기빈
- 동남갈포공업주식회사 - 대표이사 서병식
- 서울미라마관광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희춘
- 고려화학주식회사 - 회장 정상영
- 선창산업주식회사 - 회장 정해수

장남부동산동 六一四의 三 549-80211-3 (전신장: 5496-0anno)

# 本社 선정 '85년 10대 뉴스



**① 의과대학 신설** 의과대학이경주캠퍼스에 신설된다. 본교는 86학년도부터 문리대 소속으로 의예과(정원58명)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비로소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현재 「의과대학신설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부속병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② 백상캠프저지 휴교령** 지난 8월11일부터 15일까지 교문이 폐쇄되어 학생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17개대학서 실시하려던 교내캠프를 저지하기 위한 휴교방식으로 본교백상캠프 역시 무산되었다.

**③ 총학생회 부활** 학도호국단이 추진사퇴했다. 총학생회부활에 따라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되었으나 지재봉(인철·4) 총학생회장총학생회간부의 구속과 예산결산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④ 6·29 경찰난입** 지난 6월29일 새벽4시경 정사복경찰 2백여명이 학생회관에 불법난입했다. 이날 농활준비중인 총학생부 1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각종 물품과 자치회비를 강탈당했다.

**⑤ 잇따른 학생시위** 「제25주년 4·19혁명 기념식 2학년 전방입소 환영식」 「노동절 기념행사 및 노동단합 지지대회」 「광주민주유영추모제」 「민중민주화운동 탄압지지대회」 등의 시위가 계속 있었다. 이에 따른 정부당국에서 「대학은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므로 학교요청 없이도 경찰을 투입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다. 본교는 현재 총13명이 구속중이다.

**⑥ 순위고사 사실상 폐지** 지난 11월7일 문교부의 「순위고사 실시요강」발표에 따르면 순위고사가 사실상 폐지됐다. 이에 사범대학생들은 비상총회를 통해 「교사채용 차별을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수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⑦ 「홍보위」와 대학언론통제** 문교부는 신문제작권을 「홍보위원회」관할하에 두며 취재기사보다 교수는문을 상대적으로강화시킬 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학언론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통제해 자율권을 박탈하겠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⑧ 가을농촌 활동** 「가을 농촌활동 추진위원회」추위로 지난 10월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횡성군일대에서 실시되었다. 벼베기등의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사회의 모순과 이해를 돕는것은 물론, 농민·학생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자했다.

**⑨ 경주캠퍼스 총학 사퇴** 총학생회에 대한 누적된 불평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에부응하지 못한 제2대 총학생회가 몇차례의 사퇴요청과 탄압과정을 거쳐퇴진했다. 고무한 행사등으로 호국단체에 답습이문제가된 이번 파동은 민주역량고취라는 새과제를 남겼다.

**⑩ 대학농구 첫 패권** 창단이래 처음으로 대학정상에 올랐다. 지난11월12일 인천시립체육관에서 제막된 「추계대학농구연맹전」결승리그에서 4승을 기록, 연세대와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軍·행정병 모집**  
 육·해군 참모총장 위촉서  
 펜 글씨  
 차트 학원  
 732-5346  
 735-3771

**기초영어회화**  
 開講: 每月1日(수시접수)  
 (3개월 코스)  
 대상: 대학생, 유학준비생  
 이민예정자, 취업준비생  
 각종 시험 대비, 직장인  
 새벽, 오전, 오후, 저녁반  
 공개강의: 첫째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담당강사: 광영일 선생  
 중로2가 중로서점 734-2442  
 중로2가 중로서점 732-9226

**시사영어학원**  
**GRE-GMAT**  
**아카데미**  
**TOEFL**  
 開講: 每月1日(수시접수)  
 (2개월 코스)  
 대상자: 유학준비생, 대학원  
 진학, 취업준비생, 각  
 종 시험대비  
**GRE-GMAT**: 본강  
 최신 국내에서 유독  
 당학원만이 개설 중  
 일강좌입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반  
 담당강사: 유시일 선생  
 중로2가 중로서점 734-2442  
 중로2가 중로서점 732-9226

**시사영어학원**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教授 著  
**구문도해**  
**英語構文論**  
 양장미분 ₩ 5,600  
 TOEFL, VOCABULARY & TOEIC이 해  
 풀을 보기 전에 SYNTAX  
 제5학의 도제법부터 연구하  
 라는 권리는 지도교수들  
 의 공인된 추천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지상강의서  
**기초·영어구문론**  
 ₩ 3,400

●이부리 Conversation 이금해  
 ●이부리 hearing 이금해  
 도 영어연구의 진보자료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  
 초구문론으로부터!!

266-8304  
 百萬社 1층·층상 9기 267

**밤과 낮**  
 연속착용 하이퍼 II 베스콘렌즈  
**한미소프트렌즈**  
 중로2가 중로서점 한국주단3층  
 ☎ 734-0590

**통역·英·日 Guide**  
 外國語 高級化의 지용권  
 (문법, 독해, 작문, 청취, 회화, 立休教育)  
 在學中 자격취득·아르바이트수원  
 전문분야 高所得 求人 職業  
 國際社會進出의 表現  
 = 高級通譯 專門教育機關 =  
 (大在生持券)  
 交通部·서울市指定  
**現代觀光研修院**  
 남영동 금성극장앞 중로2가연립빌딩  
 715-0555, 716-0555, 713-0005

**(株)時事英語社 직영**  
**현대 시사영어사 학원**  
 <旧 현대 외국어학원>  
 ●TIME, TOEFL, AFKN 청취, Word Power, Vocabulary, L.C., 성문 綜合英語, 英語實力基礎, 英文說解, 英語順解, 英文文, 日本語, 中國語, 日本語會話, Screen英語  
 ●韓人會話-(Speak-Along English 英語會話)  
 ●美人會話-(New English Course 英語會話)

大學生·成人  
 英語·日語·中國語  
 수시등록  
 개강 일 일

파고다공원 정문 앞 (주)시사영어사 뒤 (273)4395~7-5081~2

**大學英語**  
 敎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1月6日  
 (선착순 마감)  
 李在玉 TOEFL  
 아카데미 TOEFL  
 時事 TOEFL  
 성문綜合英語,  
 Vocabulary 2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 ①②③, 英文文  
 就職 TOEFL,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文法 및 讀解  
 한재덕 TOEFL 大學院英語  
 英語實力基礎, Side by Side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美國語 Hearing GRE, GMAT  
 英語順解 TOEIC  
 受驗日語(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닌츠에스트,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語  
 서반어語, 中國語  
 院長: 文昌淳  
 중로2가 중로서점 734-2442  
 734-9226

**時事英語學院**

**새 책**  
 韓國學資料의  
 亞細亞文化社

- 正易과 一夫 李正浩著 新舊版 9,000 원
- 危機의 20年 李元雨譯 新舊版 6,000 원
- 釋語詳節第三注解 千柄植著 新舊版 7,000 원
- 廉想涉 前半期小說研究 柳炳興著 新舊版 5,000 원
- 毛澤東思想과 鄧小平의 社會主義 金永俊著 新舊版 6,000 원
- 環境政策法 李相敦著 新舊版 4,500 원
- 韓國儒學史 李丙謙著 新舊版 近刊
- 한국어 통어론 金승근著 新舊版 近刊
- 高麗朝漢詩研究 金慶株著 新舊版 近刊
- 逆說的인人生 李冕錫著 新舊版 3,500 원

亞細亞文化社  
 265-6910  
 269-9266







### 笑怒公 양기훈



幻想의 甞 김용철 著

소설가 김용철 (本社주관) 등본의 창작집 「幻想의甞」이 출간되었다.

이책은 작가가 82년 첫창작집 「겨울연지」를 상재한 이후 두번째로 낸 작품집으로 중편 「幻想의甞」을 비롯하여 11편의 작품을 실었다.

특히 「幻想의甞」은 파육과 환상에 흠뻑 젖어 허상을 탐고하는 한 寒族의 붕괴를 통찰한 지식인의 갈등과 社會의 모순을 그리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세계적인 이론경제학자인 JA舍페티의 저서 「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가 나왔다.

이책은 마르크스 이론의 예리한 비판과 자본주의의 운영민주주의의 갖가지 모순들을 순수경제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플루지...오느비」 김용욱 詩集  
사람이 지닌 이미지의 참신한 연결을 통하여 시의 아름다움을 구축한 김용욱시인의 詩集 「플루지...오느비」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82년 「心象」誌에 「交感」외 3편이 신인상으로 당선되어 등단했는데 이번 시집은, 1. 當航日誌 2. 플루지 울음에 오느비 3. 호린 저버들송 3부로 구성되어 있다.



### 高雪峰 <연극배우>

「연극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예술이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다.

태초의 인간에게는 언어가 없었다. 자연히 몸짓, 손짓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연극의 시초다. 인간은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연극은 인간이 폭적의 성취를 위해 부정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연극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는 것은 그림과 조각, 또는 영화와 달리,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예술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文學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공연을 통

## 俳優는 연극의 가치결정에 중요한수단 "땀뿜으며 다음연극 기다릴때 가장보람"

해 作家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눈앞에 있는 관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전달이라는 효과는 관객의 반응을 나타내며 연극에 있어 관객이란 단순한 구경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가 재현하는 사건에 예술적가치를 부여하는

한 회의를 느끼고 있을때 우연히 연극을 보게 되었지요. 그연극은 나에게 커다란 교화작용도 일으켰지만 내가 연극계에 발을 들여 놓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저의 아버님은 巨人們을 아주 싫어 했기때문에 쉽게 승락을 얻을수가 있었죠.라며 연극계에 투신하게된 동기를 밝히는데 그의 연극에 대한 애착은 남달리 강했지요.

연극을 통해 인간은 정신을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다. 고결봉서는 「인간의 진지한 행동의 모방인 연극은 인간의 마음을 카타르시스함으로써 사회 교화에 커다란 작용을한다」고 말한다. 모든 예술도 그렇지만 연극은 사회와 역사와의 밀접한 반응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그것은 연극의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대사는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고재남의 「극에비해 화술학이 발달하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지만 우리연극의 대사를 보면 언어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수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데 원인이 있다고 봐요」라고 한다.

연극에서 배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어떤 배역을 누가 맡느냐도 큰 관심사이다. 지금껏 한번도 주어진 배역에 실망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고재남은 「오늘 연극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대본을 읽어 보고 자신이 맡은 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극을 안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배역에는 좋고 나쁘다는 것이 없다고 봐요. 나쁜 역이라도 연극을 잘해 칭찬을 들으면 배우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배역이라고 생색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라고 중견연기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데 지금까지 4~5백작품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면서 안해본 배역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가 오랫동안 연기에 몰입아울수 있었던 것은 연극에 대한 그나름대로의 애착을 느꼈기때문이었다. 「연극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상적인 일이아닙니다. 무대에서 내러와 분장실에서 땀을 씻으며 다음 연극을 기다릴때 그때가 가장 부듯하고 기쁘요」라고 말하는 그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독일의 에일리앙스라고 했다.

「하틀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에일리앙스가 지나가면 독일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했대요. 저도 그분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극을 살아온 경험자답게 말하건대, 「그래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작품은 일제 때 「동화당」이라는 연극이예요. 일본사람

이 편이 되어버릴때쯤해서 내 귀여운 笑怒公을 가슴에담고 줄타는 기분, 그래서 그런지 숨이차는건 왠지 모르겠다. 때로는 효용까지 운운 하였던 신문이지만 그래도, 또 그래도 단들어야만 된다면 어떤 학우의 절구에 가까운 목소리를 평생 잊어서는 안된다. 만화를 통해서 평가받은 한사람이 보다는 사명감 없는 등적명령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필사없이 흘러가는 아련했던 들이 손수익의 특을 무너뜨리고 흥수가되어 나자신을 휘감아버렸음으로 하여 허우적거리다가는 4컷

## 연극 <3>

들의 눈을 속여 아슬아슬하게 공연한것이 스릴도 있었지만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켰지요. 요즘엔 그러한 연극을 볼 수 없는것이 안타깝군요. 그 외에도 「원술학」이 기억납니다」라고 말하며 연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혼한 자제」라고 지적한다. <英>

소극장 「王과 詩」개관 첫작품 폴비이어 남바 공연예정

2백여개의 객석이 마련된 연극 전용소극장 「王과 詩」가 개관되었다. 성실시대 정문앞에 자리한 소극장 「王과 詩」는 첫번째 연극으로 「극단 「가가」의 「폴비」를 공연할바 있으며 2월중에는 「폴비」의 후속작 「남바」도 공연할 예정이다.

□만화를 마치며... 「笑怒公」과 함께 웃고 화내고... 부처님의 귀 큰이유 알것같아

어릴 때, 손오공 만화를 보며 신기한 모습에 경탄하던 그 중심에 필자가 되었다면 좀 더 할 그럴수 있었을 텐데. 손오공이 마구너를 쫓아 못하게 하는 마술중에 머리칼 하나를 뽑아 입김을 후-하고 불면 수 마리의 손오공이 부러기로 날아가던...

## 민요 강습회

1차, 6일부터 16일까지  
민요연구회에서는 문화교육을 위한 기존의 민요 위주의 탈민요 강습회를 지양하고 풍물, 탈춤, 강연등의 매체를 이용한 형태로 「민요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대일 「서도민속 보존회」에서 열리게되는 이번 행사의 1차강습회는 1월 6일부터 16일까지 2차는 20일부터 30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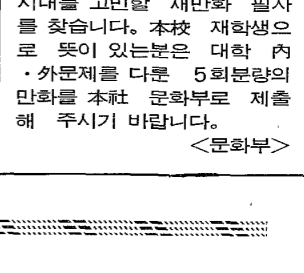
독서회원 모집  
전문 신간등 각종도서 대출  
청소년회관 도서 전시기회를 위한 독서회원 모집하고있다.

알림  
예라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시대를 고민할 새만와 필자를 찾습니다. 本誌 재학생으로 뜻이 있는분은 대외 內·外분부를 다룬 5회분량의 만화를 본誌 문화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 일림

예라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시대를 고민할 새만와 필자를 찾습니다. 本誌 재학생으로 뜻이 있는분은 대외 內·外분부를 다룬 5회분량의 만화를 본誌 문화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양기훈 <만화>



을 도끼로 쳐 삼았는지 아니면 썩어버린 현실을 먹고 식충동물자로 뒤떨어지다가 토해낸 오물의 모습을 한탄 웃고 또한 우는모양으로 표현했는지 모른다.

허전하다. 술자리에서, 강의실에서, 다방에서 우리 학우들의 신선한 웃음을 통해 들을 귀를 잘라내 기분으로 부어 흐전하다. 배웠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귀가 왜 들을밖에 없는가하는것을.

## 그레도 새 의욕으로

한해를 보내고 맞으며

불황속에 허덕이면서도 유난히 흥겨웠던 85년의 한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때문인지는

물라도 새해를 맞는 감회가 새롭지만은 않은것 같다. 학기초부터 시작된 자율화의 열기가 고조되자 정부당국은 여름방학을 기해 학원에 경찰을 투입시키므로 사실상 학생들의 자율권을 박탈해 버렸고 순위고사 폐지는 평생의 직업으로 사도의 길을 택했던 사범대생들에게 충격과 함께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했다.

또한 불황으로 가뭄된 취업의 어려움이 졸업생들을 우울하게 했던 일들을 보면 대학가의 희망은 텅빈대로 근심 짙아져 갔다. 물론 대학가 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 수필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인식  
힘찬 발걸음으로 새해 맞아

여러가지 급격한 사건도 많았지만 우리를 더욱 아쉽게 한 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인간의 이기심과 각박해지는 인식이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성금을 모금한 기사였다.

는 사실때문인가 보다. 너무나 아픈곳이 많고 너무도 비참한 곳이 많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새해에는 희망의 힘찬 발걸음으로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정희 <문과대 영문과>

## 이정희

이정희 <문과대 영문과>

이정희 <문과대 영문과>

이정희 <문과대 영문과>

이정희 <문과대 영문과>

# 완성의 문턱에서 시작의 새 의지를 -

경험과 도전으로 알차게 맺은 한해를 되새기며 내일의 힘찬 도약을 새롭게 준비하십시오.

## 첨단기술·첨단경영의 상징 - 三星

세계 500대 기업중 38위로 뛰어오른 三星 -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지가 세계 500대 기업중에서 삼성을 38위로 선정, 세계 우수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국내 최정상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삼성은 새로운 기업변신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반도체, 광통신, 유전자공학, 항공우주 산업등 첨단기술분야에 끊임없이 도전, 젊은 인재들과 함께 풍요로운 21세기를 열어갑니다.

- 64K D램 양산 수율에 이어 256K D램의 양산 수율까지 16비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 컴퓨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16비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 단일모드 음성기반의 성공으로 통신제어 회로용 일인용 공룡칩
- 인텔제과 2세대 80386의 양산기술
- 항공 우주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제로인 생산
-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 8m VTR